

## 可己門



漢拏曰那 제 9817호 제주의 대표 신문 **ihalla.**com

기사제보 750-2214 | 구독 750-2314 | 광고 750-2828 |

2023년 3월 8일 수요일(음력 2월 17일)

한라포커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어떻게 <상> 숨골 보전 방안

## 숨골 유입 지표수 영향 분석 미흡

도내 숨골 2만~3만개… 공항예정지 153개 확인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 구체적인 보전 방안 필요 환경부, 지하수 함양량 감소 저감 대책 등 주문

환경부가 지난 6일 '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' 수립을 위한 전략환 경영향평가서에 대해 '조건부 협 의'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 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지난 2021년 7월 20일 환경 부에서 반려 의견으로 제시한 ▷ 숨골 보호 미흡 ▷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▷소음 영향 평가 미흡 ▷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3회에 걸쳐 게재한다.

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2공항 부지에서 다수의 숨골이 확인됐음 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전 가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하 수 영향과 관련해 유역 또는 대수 층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 검토가 미 흡하다고 지적했다.

이에 국토부는 '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보완가능 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'에 제2

공항계획지구 및 주변 300m 내 숨 골을 조사했으며,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'숨골 속성평가표'를 기준으로 조사된 숨골은 153개소 로, 이들 대상으로 숨골 속성평가 를 진행한 결과 속성평가 점수가 높은 숨골은 총 21개소로 나왔다 고 밝혔다.

이중 사업 계획지구 외부에 위 치하는 숨골 6개소는 지하수를 오 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숨골로 유인되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보 전해야 하고, 계획지구 내부에 있 는 숨골 15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되 공사로 인한 영향 이 예측되는 만큼 적절한 기능 보 완 대책 적용을 제시했다.

아울러 '숨골 속성평가 방법'을 공항예정지 내외에 분포하고 있는 153개소(동굴 제외)의 숨골에 적용 해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숨골 기능 보완 및 저감 대책과 모니터 링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 석했다.

특히 제주 전체 대비 공항 예정 지의 숨골 분포 비율 검토는 객관 적인 비교 대상지 선정에 현실적으 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결과·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,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도 전역의 숨골 개수는 2만~3만개로 추정했다.

하지만 숨골 유입 지표수가 지하 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은 이뤄지지 않았다.

▶협의 의견=환경부는 숨골 훼손 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 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.

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직·간접 적인 용수 확보 계획 및 지하수 영 향에 대해 검토하고 수도정비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하 고 아울러 공항운영시 지하수 함량 률을 반영한 모델링(건설 후 30년 까지)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.

이와 함께 계획지구에서 발생한 우수(점오염원)는 신난천, 온평천 과 기존 배수로 3개 유역울 통해 바다로 방류되므로 하류부의 해양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고 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

**'윤석열 대통령, 4·3 추념식 참석을"** 제주 4·3희생자 유족회는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대통령이 75주년 추념식에 꼭 참석해 4·3의 간절한 봄을 또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"고 밝혔다. 이들은 "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5주년 4·3 대를 이뤄 달라"고 당부했다. 이상국기자

## 오늘 32개 조합 이끌 수장 선거

도내 21개 투표소서 오전 7시~오후 5시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특별투표소 2곳서 운영

제주도내 32개 농·축협, 수협, 산림 조합을 이끌 수장을 뽑는 제3회 전 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(오전 7시 ~오후 5시) 도내 21개 투표소에서

일제히 치러진다.

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 르면 도내 조합장선거가 제주시 지 역 투표소 12곳과 서귀포시 지역 9 곳 등 2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.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선거 가 된 7개 조합을 제외한 25개 조 합에서 많게는 7명에서 적게는 2명 총 6만8943명이다. 제주감협이 1만 61명으로 가장 많고, 추자도수협이 362명으로 가장 적다.

앞서 치러진 제2회(2019년)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단 2표 차로 당 선인이 결정된 조합이 있었고, 제1 회(2015년) 선거에서는 당락을 가

른 1표에 대한 유·무효표 판정 번 복으로 당선증 교부까지 마친 후에 당선인이 뒤바뀌는 일이 있을 정도 로 초접전을 벌였던 터라 25개 조 합 후보자들은 공식선거 운동 막판 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 표라 도 더 얻기 위해 경쟁을 펼쳐왔다.

투표는 지역조합 선거인은 신분 증을 지참해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(市)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. 품목조합(감귤 농협, 양돈농협, 어류양식수협) 선 가 가능하다.

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 달라"고 당부했다. 표소도 제주시(제주도체육회 1층

실내체육관)와 서귀포시(서귀포시 선관위 1층 회의실) 두 곳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. 격리자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 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는데, 신분 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 확인이 가 능한 코로나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. 투표를 마치 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.

개표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데 조합별 당선인 윤곽은 재검표 등의 돌발상황이 없으면 오후 9시를 전 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도선관위 관계자는 "이번 조합장 선거는 7만명에 가까운 도민이 참 여하는 선거로, 투표·개표 준비를 완벽하게 해 공정하게 관리하겠다" 의 후보가 등록했다. 선거인 수는 거인은 선거인 명부상 주소지 관할 며 "조합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선거인만큼 조합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광역정신건강센터 보조금 수억 증발… 5면 / 사교육비 역대 최고… 6면

## 4·3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 4·3특별법 시행령 개정

4·3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정 범위를 제 자녀이나, 희생자의 호적이 아 확대하는 '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'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전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 에서 의결됐다.

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

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 생자의 조카, 형제 등으로 지내왔 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.

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

을 담은 '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결됐다고 밝혔다.

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주4. 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'희생자'에서 '희생자 및 유족'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 겨있다.

서울=부미현기자 bu8385@ihalla.com

